

# Reformed Cafe

[리폼드 카페]



하나님 중심 + 성경 중심 + 교회 중심

대구경북 SFC 소식지

2013년 봄호 통권 44호

[www.tksfc.net](http://www.tksfc.net)

# Reformed Cafe

Reformed Cafe는 SFC를 통해 훈련받아 살고 있는 개혁신앙의 모습을 전하고  
운동원과 간사, 동문과 지역교회가 어우러져  
개혁신앙의 실현을 위해 토론하는 대구경북지역소식지입니다.

03 대표간사서신 · 한 낮에 꿈꾸는 사람들 · 허태영

05 엽선배의 개혁스케치 · 이진엽

06 개혁논단 · 신앙고백의 생활화 · 원태은

10 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 장재철

## 학신카페

13 동대구지방SFC

13 경산U 대구한의대SFC

17 대구U 보건대,과학대SFC

## 해외지부카페

19 해외지부 기도제목, 비전트립 안내

21 일본비전트립후기 · 박은비

## 운동원카페

24 리더쉽 컨퍼런스 후기 · 이현종 / 25 대구경북위원장 비전트립 후기 · 정삼열

26 대학생대회 후기 · 임준엽 / 27 대학생대회 후기 · 도규명

29 동대구지방 수련회 후기 · 안유정 / 30 경안지방 수련회 후기 · 김진범

31 경북지방 수련회 후기 · 김강산 / 32 경서지방 수련회 후기 · 김동선

34 대구지방 신규위원교체식 · 강여울

## 간사카페

35 재신임훈련 후기 · 김현정, 오주원

38 간사 소식 / 44 사역 계시판 / 46 후원자 명단

2013년 소식지 컨셉은 강령입니다.  
강령의 4주제인 신조, 목적, 사명, 생활원리를 설명하고  
우리의 운동가운데 강령이 어떻게 실천 되는지 조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강령을 구현하는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방향과 길을 제시 할 생각입니다. 관심가지고 참여해 주세요.

vol.1 2013\_봄(통권44호) · Reformed Cafe 제3호 · 발행일 2013년 2월 26일  
· 발행처 대구경북학생신앙운동(TKSFC)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123-36번지 2층 701-813  
· 전화 053-759-0840, 070-8232-5499 · 팩스 053-756-9489 · 이메일 tksfc@hanmail.net  
· 발행인 허태영 · 편집인 서우석 · www.tksfc.net



대표간사서신



##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sup>1)</sup>



허태영 간사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일차적인 소명’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 이 확신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한다. 또한 자신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과도 다르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의 ‘일차적인 소명 원리’에 입각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니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청중’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한다. 정직하게 행하는 원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

‘2차적 소명’은 우리가 일차적 소명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무한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해준다.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한다’는 전제에서 우리

1) 오스 기니스, 『소명』의 장 제목에서 인용했다. 이 글은 기니스의 책을 읽으며, 2013년 대구경북지역 SFC를 생각하며 작성한 글이다.





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 직업 현장에서 이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다. '명확한 소명'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줄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직업의 현장이 소명의 현장'임을 서로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

직업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1,2차적 소명'은 늘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다. SFC 운동원들과 동문들은 바른 '소명'에 대한 이해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 일을 위해 운동원들과 동문들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의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은 영역운동과 멘토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전도와 신입생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SFC가 무엇을 위해 모인 '운동'인지 매순간 확인해야 한다. '전도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질문을 두고 명확하게 답변할 때 전도가 힘 있게 된다. 우리는 '개혁신앙인으로, 강령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소명"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무한한 평안과 열정을 소유한 자들을 만들어야 한다. 동문이나 운동원이나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즐거움으로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자. 우리의 강령을 이루기 위해 멘토 시스템을 생각하자. 교회 SFC, 학원 SFC, 모든 조직을 넘어 세대를 이어가는 멋진 기도와 봉사로 서로를 세워가는 멘토 시스템을 기대해 본다.

기니스는 "한낮에 꿈꾸는 사람"에 대해 로렌스의 말을 인용한다.

"밤에 먼저 쌓인 마음의 한 구석에서 꿈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한낮에 꿈꾸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한낮에 꾸는 꿈'은 무엇인가? SFC가 의뢰된 교회를 통한 국가와 학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 가는 것이 아닌가? 한낮에 꿈을 꾸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행동하자. 우리는 "운동원"이 아닌가? 어떤 시스템의 변화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소명'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과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한낮의 꿈'으로 생각하는 대구경북 SFC를 기대하며...

\* 허태영 간사.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표간사로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를 꿈꾸었던 그는 현재 SFC국제부 사역총무로 겸임하며 선교사역을 적극 지원하는 언제난 청년 같은 사역자이다.



# 엽선배의 개혁스케치



이진엽 동문 \_ 대구대



이진엽(대구대06) / 사회복지,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림, 상담을 하는 동문입니다. 믿음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말씀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동문입니다. 열정과 포부를 가지고 즐겁게 보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동문입니다

대구경북 SFC 5

## 신앙고백의 생활화를 위하여!



\* 원태은 목사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신앙고백을 이야기 할 때 한쪽에서는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을 소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며 신앙고백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신앙고백 자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조에 대한 지적인 열망이 신앙 전부인양 신조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모습도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곤 했다. 신앙고백은 왜 필요한가?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신조가 있어야 하나?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고백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오늘날 신앙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가? 아니면 불필요한가?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수많은 교리문서들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교리란?** ‘교리’란 무엇인가? 20세기 초 네델란드 개혁교회의 목사였던 보스마는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도출된 신적 계시의 진리 체계’라고 정의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해설이다. 이러한 교리를 체계화 하여 만든 문서를 신조(Creeds), 신앙고백(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 등으로 부른다. ‘신조’는 구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약한 것으로, 초대교회 삼대 공교회 신조인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 니케아 신경(Nicene Creed), 아타나시우스 신경(The Athanasian Creed)이 있다. ‘신앙고백’은 성경 전체에 대한 신앙의 주제들을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해설하고 정리한 책이며, ‘교리문답’은 이러한 신앙고백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개혁주의 교회들(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벨직 신앙고백서(The Belgic Confession, 1561),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The Heidelberg Catechism, 1563), 도르트 신경(The Canons of Dort, 161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1647),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Westminster Large Catechism, 1648),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Westminster Short Catechism, 1648)이 있다.



**교리(신앙고백)의 필요성** 그러면 왜 이러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공의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여기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언급되는데, 단일성(One), 거룩성(Holy), 사도성(Apostolic), 보편성(Catholic)이다. 이러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의 요약이며 해설인 교리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케아 신경은 3세기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했던 이단 아리우스의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백함으로써 당시 교회를 하나로 묶었던 신조이다. 또한 17세기 초 유럽 전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잘못된 예정과 구원 교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도르트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결과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어 오늘날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불리는 ‘인간의 전적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시 교회는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6세기 교회개혁을 이끌었던 칼빈(J. Calvin)은 영국의 한 성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교육이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선한 씨앗이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왕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튼튼히 서 있는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아주 인상 깊게 이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염려하고 돌보시오!”라고 했다. 또한 칼빈은 제네바 교리문답서(1542)에서 “교회는 언제나 어린 아이들을 기독교 신앙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 왔다. ....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교리문답(catechism)’ 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규칙을 사용하였다. 사탄은 자신이 교회를 흠여서 가공할 만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징표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자 사탄은 이런 거룩한 질서를(교리문답) 붕괴시켰다. 따라서 사탄이 남겨 놓은 것은 변화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미신만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물들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내적인 힘은 없고 외적인 종교적 모습만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확실한 원인이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교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전통적인 것이다.”라며 교리문답을 필요성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 장로교의 신앙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의 해설서를 작성했던 하지(A. A. Hodge)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곡해하며, 말씀의 어떤 부분을 과장하고 다른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중요한 교리를 정확히 정리해서 잘못된 것을 밝히고, 모든 거짓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전체 내용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잘 정리함으로써 말씀의 어떤 부분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또는 제거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이다.”라고 하며 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신앙고백은 첫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요약과 해설을 통해 교회의 하나 됨을 확립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이단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둘째, 성도들과 언약의 자녀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세계 개혁주의 교회들은 하나 같이 신앙고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혁교회는 매주일 오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로교회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을, 성인성도들을 위해서는 대교리문답을, 그리고 전체 교인의 신앙 체계를 위하여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며, 특히 직분자로 장립받을 때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봉사하기로 서명하게 하므로 교회 생활의 근간으로 삼는다.

**교리(신앙고백)의 내용**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이 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인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잘 고백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를,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심을 고백한다(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8주일). 초대교회 삼대 공교회 신조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 정립되어 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따라 작성되었다. 칼빈은 평생에 걸쳐 기독교 교리의 요체로서 '기독교 강' 요를 작성하였는데, 28세(1536) 때 초판을 작성하고 여러 번의 개정 끝에, 1559년에 전 4권으로 된 최종판을 완성했다. 이 기독교 강요(최종판)는 삼위일체 구조를 따라서 작성되었는데, 제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 2권은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 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 그 유익과 효과'로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제 4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로 교회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로마서의 구조와 상응하기도 한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실행하는 선행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조가 이 부분을 잘 드러낸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3부로 구성되었는데, 제 1부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하여 다루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여 비참에 거한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제 2부로 다루는데, 여기서 사도신경 전체를 해설한다. 이렇게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우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이다. 여기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해설하는데,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 받은 성도는 그에 대한 감사로서 선행 즉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의무로 가르치고 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도 전체를 '신앙'(4~38문)과 '생활'(40-107)로 구분하여(3문답), '신앙'의 부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생활'의 부분에서는 '십계명'(41~81문)과 '주기도문'(98~107)을 해설하고 있다.

**신앙고백의 생활화를 위하여!** 다시 질문을 해 보자! 신앙고백은 무엇인가? 어떤 배경과 목적에서 신앙고백이 작성되었는가? 그러므로 신앙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신앙고백은 성경과 그 권위가 동등하거나 우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관한 해설이며 요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 교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성경에 근거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앙고백을 역사적 산물로 취급하여 오늘날 유효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해설과 요약은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8-20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장로교회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부흥







이 지속되지 못한 중요한 요소로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에게 교리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100년 남짓 지나며 역사상 괄목할만한 부흥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제 갓 100년을 넘긴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며 타락해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한다. 그 중심에 교리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이러한 올바른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사단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고 했다(마 16:16-20).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교회' 건설을 위하여 성경과 함께 교리를 신앙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의 퇴락을 막아서기 위하여 교회 개혁자들과 같이 다시금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신앙고백을 들어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하여 전통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생활화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적 생활을 위하여 날마다 신앙고백을 생활화해야 한다. 신앙고백을 생활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SFC운동이 되길 바란다.

\*원태은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경남중부노회 전도목사로 경북대학교 근처에 개척해 현재 로템교회의 담임목사이다.



#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 장재철 간사(충청지역)

SFC는 개혁신학을 중심신학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SFC를 다른 선교단체와 구분 짓는 것이며 SFC의 정체성이다. 개혁신학을 우리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드러내는데 그중에 중요한 하나가 ‘공교회성’이다. 이는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을 사명으로 삼는 SFC강령에서도 알 수 있다.

‘공교회성’은 ‘공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나는데, ‘공교회’는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이다. 이 공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 ‘보편성’이 바로 공교회성이다. 그런데 이 공교회성은 공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공교회는 천상에 있거나 혹은 관념 속에 교회가 아니라 바로 지역교회이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지역교회(local church)이지만 동시에 공교회(catholic church)이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공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지역교회가 공교회로서의 자태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곧 지역교회가 순수하게 공교회성을 충실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공교회성을 흐릿하게 하는 덜 순수한 지역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한 교회든, 덜 순수한 교회든 교회는 반드시 최소한의 공교회성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공교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FC가 개혁신학을 기조신학으로 삼고 또 강령에서 공교회 건설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의 운동 역시 공교회 건설을 위한 운동이 우리의 중요한 축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운동에서 어떻게 공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바른 말씀 선포이다. 물론 SFC의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예배 때 행해지는 '말씀 선포(sermon)'와는 다르다. 예배 때의 말씀 선포는 말 그대로 '설교(sermon)'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하는 유일한 공적 말씀선포이며 그 어떤 모임, 선교단체 그리고 사람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사의 설교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SFC에서 행해지는 말씀선포는 예배의 말씀선포의 권위는 아니지만 '신앙적 권



면(edifying words)'으로서 가치가 있다. 경건회(큰모임) 때에 행해지는 간사님들의 말씀 선포는 마치 개혁주의 교회의 장로들의 심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처럼 신앙적 권위를 가진다. 곧 예배 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SFC가 학원과 수련회 등 많은 행사에서 엄중한 '신앙적 권면'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개혁신학의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한다. 본문을 통해서 신구약의 주인되신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하나님을 설교해야 한다. 인간이 주제가 아니라 삼위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역사를 어떻게 언약 안에서 이루어가시는지,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지를 명확하게 설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안목이 우리 SFC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큰모임을 통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간사들이 선포하고 운동원들이 배운다는 것은 공교회를 세우기 위한 첩경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은 말씀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주해와 적용이라는 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개혁신학과 강력에 충실한 운동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공교회적 고백, 곧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교리'란 성경에 흠어진 진리를 명제적 형태로 선언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교의'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신자의 구원뿐 아니라 신자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그런데 이 진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산재해 있다. 이 산재해 있는 진리를 교회의 선배들은 '교의'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으며, 이 정리한 교의가 공교회의 인준을 받아서 '신앙고백', '요리문답', '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도 신경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이 있다.

공교회적 인준을 받았다는 것은 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먼저 교리를 '규정된 규범(standardized nor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리의 중요성과 권위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교리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규정하는 규범(standardizing norm)'인 성경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정치(헌법)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교회정치(헌법)는 반드시 성경과 신앙고백과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 권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곧 교회정치는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고백의 지지를 받아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교회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정된 교단의 헌법(2012판) 앞부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뒷부분에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공교회의 고백을 첨부하고 있다. 이렇게 교리는 단순한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명제적으로 정리할 뿐 아니라 교회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이 된다.

살아있는 진리인 신앙고백의 유용성은 실상 교회정치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세례의 사역에서 쓰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세례를 줄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지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는 사도 바울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7)'라고 말씀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감히 '다' 전하였다고 말하였다. '다'는 실제적으로 성경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설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명제적 진리, 곧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울의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다 가르친 후에





바울은 각 교회에 세례를 주었다. 교리는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세례 사역과 성찬 사역에 쓰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다. 따라서 교리는 공교회를 세우는 두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뒤에서 돕는 숨은 방편이다. 곧 교리는 박물관 박제되어 있는 멸종된 동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마당에서 신자와 동거동락하는 살아있는 진리이다.

이렇게 교리는 중요하다. 특히 복음주의 운동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 개혁주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SFC에게는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SFC가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한다면 복음주의 운동과 다른 운동을 해야 한다. 물론 중복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에서 밝힌대로 공교회를 세우는 운동이다. 복음주의 운동은 복음전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불신자들이나 불신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전파도 소외시킬 수 없겠지만 복음전파에서만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교회의 교인으로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가 목표가 아니라 바로 공교회의 성도가 우리의 목표이다. 그런데 공교회의 성도를 어떻게 키우는가? 바로 위에서 말한 말씀과 교리이다. 큰모임과 수련회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삼위일체적인 말씀이 운동원을 공교회의 신자로 만들어 줄 것이며 동시에 2000년 교회가 고백해 온 공적교리가 공교회의 성찬을 때는 신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운동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자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더 우리 운동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리를 공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공적교리를 SFC의 공식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야 한다. 지역과 담당간사에게 이 일을 맡기지 말고 전국 SFC 차원에서 SFC의 강령성취를 위해서 교리를 커리큘럼화 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원들 역시 이 교리를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아침에 큐티모임을 말씀묵상이 아닌 교리묵상 시간을 갖는다든지 혹은 방학 중에 교리학교를 열어 교리를 여유를 가지면서 진지하게 배울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자라나고 배운 SFC 운동원들이 참된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건설을 하리라 믿는다. 이것이 곧 강령성취이다.

\*재정철 목사 / 대구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간사로 사역하다 현재 충청지역SFC 대표간사로 사역하고 있다. 청주 한마음교회,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꿈꾸는 간사입니다.



나날이 더해지는,  
나날이 짙어지는,  
동대구지방!

동대구지방은 대구경북지역에 속한 5개의 지방 중 하나입니다. 대구와 경산, 청도 일부에 포함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위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를 좋게하고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동대구 지방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위원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지방사역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살피며 하나 되어 가도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역에 앞서 지방위원들이 먼저 성도로 바르게 세워져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 지방의 교회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동대구 지방에서는(교회사역팀 큰모임 제외) 위원교육모임, 대학생모임을 통해 성도로, 지체로 배우고 섬기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고3훈련과 수련회, 개학부흥회 등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교회의 필요를 살피며, 기도의 힘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품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교회의 성스러운 의무로서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시며 또한 그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 신앙의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모성애와 같은 배려로 그들을 기꺼이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성도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오늘도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 2013년 동대구지방 13대 위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구지방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삼승교회 김 악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낮은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평안하시지요? 동대구지방 부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대구동 일교회 정은숙입니다. 더욱 성실하게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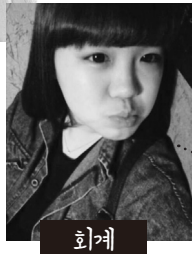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구지방 부총무로 섬기고 있는 청구교회 정현모입니다. 올해 SFC위원이 처음이라 모르게 여러동절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마음이 설렙니다! 이번 한해도 주님안에서 파이팅입니다!



지난1년에 이어 2013년을 서기로 섬기게 된 청구교회 박성은입니다. 이렇게 다시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SFC위원으로 세워주심으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깊이 새기고, 누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사람이 꽃피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부서기로 섬기고 있는 안유정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회들과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쓸모있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동대구지방 회계로 섬기고 있는 청구교회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위원으로 섬긴지 2년째이지만 더 열심히 하며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구지방 소속 교회 이름을 담아 만든 짧은 소개말 덧붙입니다.  
 늘푸른 죽림 같은 믿음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세워진 동대구 지방.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오늘도 대구의 푸른 언덕(청구)과 경산중부 가운데 말씀사랑과 기도로 생명의 빛을 전하리... ..  
 주 사랑으로 삼승하고 수정처럼 빛나는 일심과 행복 나눔이 있는 늘 좋은 동대구지방 임당♥





# '아자아자 파이팅' 대구한의대 SFC!!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 SFC 위원장 장승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서 무척 반갑습니다. 대구한의대! 이름은 대구지만, 위치는 경산에 있습니다. 더 간단하  
게 설명드릴까요? 100번과 99-1번의 중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머리에 쏙 들  
어오게되죠.

저희 학교는 자연이 아직 남아있는 경산 전경을 보실 수 있구요. 밤에는 더더욱 끝내  
주죠.

그리고 자연에 때 묻지 않은 그림과 같은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올려드  
리고 싶지만!! 카~~아쉽군요!!

저희학교 SFC 운동원들은 하나같이 다~쾌활하구요, 정말 활발합니다. 같이 있으면 웃  
음이 끊이지않습니다. 다만!! 썰렁한 개그를 하여 분위기 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대구한의대가 작년부터 캠퍼스가 하나 더 생겨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SFC모임에 직  
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정과만 가야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갈 수 밖에 없는 상  
황인지라, 새로 생긴 오성캠퍼스(구.아시아대학)에서는 버스노선이 거의 없고, 스쿨로만  
의지해서 오기 때문에 많은 운동원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책은 미비하고 기도로 그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2학기 때는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매년 CF와 홈커밍데이를 하지만, 이번에는  
재정적인 문제와 동방에 있는 부수적인 문제를 위해서 홈커밍데이가 정말 중요했습니  
다. 정말 열심히 짜고 선배님들 봐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한분 한분 직접 연락도 드리고,  
편지도 보내드렸습니다. 동문선배님들을 보고 나서 아직도 SFC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없어진 비품들이나 겨우 적자를 면한 재정은 조금  
이나마 한숨을 돌릴 정도로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 많은 시련도 있었고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사람으로나 학교까지!! 그러나 저희는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희 한의대 SFC.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 많고 영성해보일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꼭 제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학기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해달라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전까지 SFC 잘될 때 우리가 한 것이라 생각했고,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지나간 것도 우리가 잘한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를 지나가면서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칭찬 한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신입생들이 수적으로 많이 왔으면 합니다.

지금 SFC에 있는 선배들은 이번 해에 다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알들로 설 자가 1~2명정도밖에 없습니다. 계속 힘겹게 세 명은 유지했지만, 선배들이 나가게 되면 그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이번 해에 신입생들 모집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한의대SFC가 믿음에 바로 선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기도제목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즐거이 여기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열중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 한분만으로 기뻐이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한의대SFC 이번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 고맙습니다.

이번 학기!! 추진력은 강하지만 뒷마무리가 영...인 저 위원장과 추운 날 김스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주는 부위원장 원택이와 썰렁한 개그로 가끔 매를 부르지만 제일 일 잘하는 수호총무와 뭐든 잘하고 무슨 짓을 해도 계속 이쁜 회계지원이와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지겨운 우리 막내 은지서기랑 묵묵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식이 알들이랑 잘해내겠습니다!!!!







## 우리는 학생신앙운동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대구보건 · 과학대 S.F.C 위원장을 맡게 된 보건대 12학년 정현희라고 합니다. 언제나 어색하지만 한 첫 인사를 시작으로 어떻게 마무리까지 지어야 할지, 부담감이 앞서지만 이렇게 전문대 캠퍼스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동아리 소식을 전하기 앞서, 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S.F.C로 섬겨왔던 터라 대학에 와서도 S.F.C 동아리에 드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인들의 권유도 있었고, 무엇보다 첫 객지생활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기에 동아리 입성(?)에 대한 간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아리에 들기 위한 제 열심에 반해 좀처럼 S.F.C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니다. 동아리 현황을 찾아보고, 동아리 방이 모여 있는 곳을 둘러봐도... 학기 초에 캠퍼스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아리 홍보 포스터조차 S.F.C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3월도 후반에 접어들고, S.F.C에 대한 열심조차 시들어갈 때 즈음 '다른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봐야하나' 한숨짓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떨어져가는 S.F.C 홍보 포스터! 한창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찬 바람에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핸드폰에 금주혜 간사님과 당시 위원장 언니의 연락처를 저장하던 그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대구보건대학교와 과학대학교가 함께 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식 동아리 신청을 했지만,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히 좌절당한 탓에 현재는 과학대학교 C.C.룸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 지난 1년간의 사역을 말씀드리면, 금주혜 간사님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6시에는 큰 모임을, 작은 모임은 큰 모임 전 오후 1시에 '성경 파노라마'로 창세기부터 공부를 했어요. 아침 모임은 화요일, 수요일 8시에 보건대학교 식당에서 '날마다 주님'과 나눔을 가졌습니다. 학기 초에는 경북대와 연합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후반기에는 1박 2일로 동문 C.F를 가지면서 동문 선배님들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새삼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최근에는 학위 수여식을 맞이한 동아리 언니, 오빠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고, ‘운동원’으로 함께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동문 선배’가 된다니 다들 새삼스러워 했어요. 어색한 첫 만남이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보내야 한다니... 전문대라 졸업이 빨라 함께하는 시간이 짧은 아쉬움을 뒤로해야했습니다. 2월 말에 있을 ‘가족의 밤’을 기약하며!

이번 학기 사역도 작년과 비슷하게 이루어 질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신입생 모집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매년 포스터 붙이는 것 외에는 부족했던 점들을 보충해서, ‘가두 모집’이라고 이름 붙여야 하나요, 이번 신입생 입학식을 기점으로 시작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S.F.C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들을 캠퍼스 내에서 함께 감당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매년 감사하는 제목들이지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4: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도바울은 앞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11-12절)’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단 지, 긍정의 ‘할 수 있다’가 아님을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도바울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고, 비천해 처할 수도 있음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청년회 성경공부를 통해 배우게 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았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문대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속상해 했던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전문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로 많이 후원해주세요!



# 우리 기쁨 땅 끝까지! 기쁜 날 열방을 기쁘게!

우리의 기쁨을 해외지부와 함께 나누시다.  
해외지부 간사와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 해외지부 상황

SFC해외지부는 5개 나라(필리핀, 중국, 일본, 몽골, 태국) 8개 지부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간사는 11명의 간사와 가족들이 사역하고 있고, 해외 현지인 간사들은 7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 - 기도제목 -

## 해외지부 견제

1. 해외지부 간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 한국인 간사들의 비자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3. 가족들의 심적 안정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4. 엽서너리들과 비전트립에 많은 운동원들이 참석하여 선교의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5. 사역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 각 해외지부

### 필리핀 마닐라

- 남간사 부부와 3명의 현지인 간사들(알돌, 설리, 조이)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
- 캠퍼스 사역과 원주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도록
- 2013년 3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엽서너리 훈련(3명)을 위해

### 필리핀 일로일로

- 박현진 간사의 건강과 사역에 열매를 주시도록
- 협력하여 섬기는 사역자들과의 좋은 관계와 협력의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 A국 Y지부

- 허간사 가족의 안전과 사역 중에 생기는 문제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 학사와 SFC가 개척된 한족교회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일꾼을 보내주소서

### A국 B지부

- 김간사 가족과 정간사의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 개척된 한인교회와 한족교회의 부흥과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 엽서너리 훈련(1명)이 은혜 중에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 A국 S지부

- 차세대, 임하리 간사부부의 건강과 언어 공부를 위해
- 물가가 비싼 상해지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몽골에서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더 멋진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 M국 지부

- 박현석 간사 가정의 현지 적응과 언어 훈련이 사역과 지혜롭게 병행 되도록
- 캠퍼스 속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학사를 통해 효과적인 양육이 이뤄지도록
- 현지 간사들의 멋진 팀워크와 협력하는 생명의 새생교회의 부흥을 위해

### 일본 동경

- 손만석 간사 가정과 서유미 간사부부의 건강과 필요한 후원금이 채워지도록
- 비바체교회가 일본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부흥을 주소서
- 계속 되는 엡서너리훈련에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소서

### 태국 방콕

- 홍정훈 간사 가정의 건강, 언어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 태국SFC 전체 사역이 홍정훈 간사를 중심으로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 국제사역부

1. 허태영 간사의 건강과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2. 효과적인 선교동원사역이 이뤄지도록 선교팀이 잘 구성되어 활동 할 수 있도록(간사, 운동원)
3. 해외지부 사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물품 등을 주소서
4. 올 여름에 대학생대회와 함께 열리는 "제4회 국제리더십컨퍼런스"를 기도로 잘 준비하도록
5. 효과적인 기도의 사역을 위해 "국제사역부 기도팀"이 구성이 되도록

## 2013-2 여름 해외비전트립 모듬

통일비전, 몽골, 실크로드, 터어키 등 비전트립이 있습니다.

문의: 허태영 간사(010-4533-7108 국제사역부 총무)



<< 비전트립 후기 / 박은비(경북대)

SFC 일본비전트립 11기로 다녀왔습니다. 작년 비전트립이 인원부족으로 취소되었지만 갔던 2명을 10기로 쳐서 11기입니다. 이번에도 많지 않은 인원인 7명의 운동원이 한국에서 출발했고, 1명이 뉴질랜드에서 일본으로 중간에 합류하여 함께 했습니다.

가기 전 선교와 비전트립에 대해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풍선아트도 배우긴 했지만, 준비한 것에 비해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놀랍게 부여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SFC에서 파송한 손만석 선교사님께서 개척한 도쿄의 비바체 교회에 머무르며, 주일과 두 번의 수요기도회를 함께 드리고, 그 지역의 대학 캠퍼스와 교회를 찾아가보았고, 야스쿠니 신사와 아사쿠사 신사, 황궁도 방문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의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지역 이와키시에서 2박3일간 머무르며 봉사활동도 하였습니다.

이와키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후쿠시마현에는 방사능으로부터 피해 온 분들, 쓰나미로 집과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한 큰 가설주택단지 가 총 12개 있는데, 그중 글로벌 미션센터(GMC)팀과 연결되어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이와키시의 3곳(히사노하마,유모토,나루하마치)을 방문했습니다. 피해지역과 사람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오랫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하



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그 삶의 자세를 보며 도전도 받았었습니다.

가설주택지에 봉사하러 와서는 전도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우리는 한국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일본어로 찬양하고 워십댄스를 추는 것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힘을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어린 아이만 있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을 받는다고 여겨 좋아하였습니다. 4천여 명이 거주하는 큰 규모의 나루하마치 가설주택단지에 갔을 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은혜공동체심김이라는 MPO단체에 속하여 활동하시는 나루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생활에 지쳐있어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집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분도 많고, 집안에서 자살하는 분이 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참된 위로를 받기를, 그 곳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쓰나미 피해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이와키에 다녀와서는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11시 예배를 비바체교회 청년들과 함께 드리고,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와서 공부하는 대학생도 있고, 일하시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와키에 다녀와워서 고맙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분은 일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갈 수 없다는 말에 안타까웠습니다. 우





리 비전트립 팀의 방문 자체가 일본의 믿는 이들을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되었다며, 이번에 일본이 선교지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청년도 있다고 손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비바채 교회에서 매달 마지막 주는 교회 근처의 타카다노바바(高田馬場)역 앞 광장에서 노방찬양을 하는데, 마침 마지막 주여서 함께 광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캠퍼스 아웃리치는 2명이 한 팀이 되어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여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학교 근처에서 전도용품도 나눠주고 학생들과 사진도 찍는 미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이오(慶應), 호세(法政), 릿쿄(立教), 와세다(早稲田), 각슈인(學習院), 메이지(明治), 도쿄대(東京)를 방문했는데, 착하고 친절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고, 진정 필요한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때에 그 방법으로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세네명씩 한 팀이 되어 서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에 와서부터 많은 곳을 다니며 아무리 둘러봐도 비바채 교회 외의 교회를 보지 못하여 한국이 교회가 많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일본을 향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다른 팀은 교회를 거의 한두 곳 겨우 찾았으나 그 교회마저도 평일이라 문이 굳게 닫혀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다는 공자의 사당 유시마

세이도도 보고, 많은 신사들을 보았는데 보이는 곳마다 들어가 둘러보며, 이곳을 찾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주로 인해 채워지고 참 평안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지정된 역(오차노미즈御茶ノ水)에 도착하자마자 십자가를 발견하여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보니 그곳은 기독교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독교점에서 알려진 오차노미즈그리스도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한국인 장로님 가정을 포함해 5명의 한국인이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있어 영어예배를 따로 드리는 큰 교회였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친절히 교회당 전체를 일일히 다 열어주며 안내해주셔서 둘러보고, 이 야기도 하고, 함께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몇몇 교회를 보고 방문하여 이야기도 하고, 길 잃은 곳에서 루터교회도 보고, 마지막으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일본에 세우신 한인교회인 동경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생각보다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일본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수요기도회 때는 나달식 선교사님(후사장로교회)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롬8:12~17)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치 없고 썩어지는 것의 상속, 귀족들만 받을 수 있는 부의 상속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나라 상속은 누구든





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영  
원한 것이며, 단 한 가지 조건은 고난이  
지만 그 놀라운 가치를 알기에 달게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  
교사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는 에텐교회 조광훈 목사님  
께서 선교강의를 해주셨는데, 한국이 보  
는 일본, 일본이 보는 한국에 대해 들으  
며, 일본 선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느껴습니  
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선교가 일어났  
지만 일본이 그 역할을 잘 감당 하지 못  
하였고, 지금은 선교를 위한 부으심으로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에 빛  
진 자인 우리가 가지는 사명에 대해 말씀  
(은4:11, 겔3:18, 창:19~21)을 통해 들었습  
니다. 일본은 다른 대부분의 선교지와 달  
리 잘 사는 나라이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데에 비해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서양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선교는 기업을 아닙니다. 바로 이웃  
의 이 나라에서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날에 우리  
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일본은 영적으로 많이 놀리는 곳입니  
다. 사실 가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  
데, 비바채 교회에서 쌓은 기도의 힘인지  
든든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있는 것 같아 참 감  
사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생각으로 다녔는데, 가는 곳  
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가 높아지고 하나님 한분만이 영광 받으  
시는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일본비전트립은 물질이 풍족한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  
음에 대부분 힘들어하기 마련이라고 합  
니다. 이 점에 대해 선배들께 조언을 들  
었는데, 필요가 있는 곳에는 최선을 다해  
도와야하지만 할 것이 없는데도 내가 무  
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에 힘들어 하지 말



고, 비전트립이니 보고 배우고 누리고 오  
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불들리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배우  
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정말 많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많이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1기팀은 쓰나  
미 피해지역의 필요에 의해 그곳에 머무  
르며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게 되어, 앞서 들은 이 어려움이 없었습  
니다.

비전트립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목적  
이 첫째라고 합니다. 11일의 기간 동안에  
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끌려 다  
녔을 뿐인데도, 일본비전트립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이 많고 나  
자신이 발전한 부분도 있고 나 자신에게  
품게 된 소망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과 깊이 교제하면서 깊은 누림을 누렸고,  
그 이전보다도 더 큰 감격과 애통합 또한  
일본땅에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일본비전트립 12기를 위하여서도 11기  
함께 기도 하고 있으며, 손만석선교사님  
과 가정을 위해서, 비바채 교회와 일본의  
교회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손선  
교사님과 김영숙사모님께서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교회의 필  
요한 부분 채워주시기를, 또 일본의 공허  
하고 아픈 부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  
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 땅끝까지, 기쁜날 열방을 기쁘게!



# 학생신앙운동의 가치를 알고, 누리자!



\* 이현중(경서지방 위원장)

얼마 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유시민 전 장관의 책 중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깨닫고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거저 얻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시민 전 장관의 정치적 통찰을 통해 나는 우리 학생신앙운동(SFC)을 볼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리더, 아니 모든 운동원이 현재 SFC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좋은 선배들의 바른 강의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누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는 SFC가 주는 신앙적 교육과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할 때이다. 그 대가를 치르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SFC가 내세우는 가치가 얼마나 값진 가치이고 바른 가치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찌 SFC의 리더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온전히 SFC를 누릴 수 있겠는가. 리컨의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SFC에 대해 하나님나라의 관점으로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교육을 통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내야 할지 또한 잘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리컨을 통해 SFC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SFC의 여러 좋은 프로그램과 바른 교육을 그저 지나가는 일들 썸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운동원이 리컨을 통하여 SFC를 충분히 누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 TKSFC 백록담에 서다.



\* 정삼열(안동대 알뜰장)

“우석 간사님, 1800m 예요”  
”다 왔다, 이제 20분만 더 가면 된다!”

오후 1시경,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낙오자 없이 18명 전원이 백록담에 올랐습니다. 등반의 기쁨도 잠시, 계속되는 강풍으로 인해 배재준 간사님의 “SFC 하산 !!”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3박4일간의 일정 중 3일차의 클라이막스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TKSFC TLTC (Top Leader Training Course).

대구경북지역 SFC에 소속된 2개 U(대구U, 경산U) 학원 위원장들과 5개 지방(경북 대구 경서 동대구 경안) 위원장들이 2월13일~16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의 사역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각 학원, 지방의 대표자들이 함께 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전체를 바라보며 고민하고자 하였습니다.

U와 지방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며 함께 사역을 펼쳐 나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귀한 시너지들을 알고 있기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제주에서의 3박4일 동안 체하는 운동원, 올레길에 노상방X 하는 운동원이 속출할 정도로 치열하게 먹고 치열하게 관광 하였습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스쳐가는 이야기들에서조차도 우리는 각 학원과 지방의 상황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에 모든 것을 하기에는 분명 제약이 많았습니다. 서로간의 서먹함을 해소한 후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 서로 풀어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더 많습니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지방과 학교를 조월한 귀한 멤버십이 생겼고, 이를 시작으로 올 한해 모두가 함께 완성해 나갈 대구경북지역 SFC의 큰 그림이 기대가 됩니다.

Top Leader들이 시작한 이 귀한 멤버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임준엽(경북대)

안녕하세요. SFC 운동원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제31차 대구·경북 SFC 대학생 겨울 수련회가 지난 12월 26일에서 29일 동안 동일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저마다 마음이 분주하거나 들뜰 수 있는 시기에 운동원분들과 함께 나아가와 말씀을 듣고 나누었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음 참여하는 겨울 수련회인데다가 조장이기까지 하여 기대와 부담으로 맞이한 수련회였습니다.

이세령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조망 해주시면서 여리고를 정복한 과정과 그가 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 지파들의 토지 분배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이후의 안식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패역과 악함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진멸된 이후 토지의 분배와 그 이후의 세겜 언약과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의와 공평의 원리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고, 참된 기쁨

과 위로와 안식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가 끝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청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연합됨과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선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온전케 이루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조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조원들과 교제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크한 다운이, 완판녀 민아, 순박한 시골청년 재한이, 파릇파릇한 애기 미현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서로 마음을 열면서 느낀 그 마음들 못 잊을거야. 이 글 볼 수 있기를 하하!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의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 한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며 지어져갑시다!

# 대구경북 겨울 대학생 대회를 다.녀.와.서.

도규명(대구대)

3,4년 만에 오는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 주신 이 대학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한지 2년째 되는 해 나는 대구경북 겨울 대학생 대회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sfc에 대해 잘 모르고 관여하지도 않았던 내게 매년 선배와 동기들 간사님이 대학생 대회를 가자고 하는 말은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는 그 약속도 세상 것에 흠뻑 빠져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다시 부르셨다. 정말 세밀하고 인격적으로 말이다!! 처음가는 대학생 수련회는 형 누나들의 손을 잡고 처음 갔던 수련회만큼이나 낯설고 내 자리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운동원들은 서로 다른 대학에서 온 사람들과도 잘 알고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반면 나는 대구대 운동원 밖에 모르니 새 신자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OT시간과 조편성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온 운동원들과 안면을 익히고 서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자기 소개를 하며 나와 같이 처음 오는 운동원도 있고 나와 닮은 점이 많은 다른 학교 운동원도 보면서 어수선했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주제 말씀으로 수련회를 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주제 성구와 강사 목사님이신 이세령 목사님의 말씀이었다. 첫째 날 저녁 경건회에서 수없이 교회에서 들었던 여리고 말씀과 가나안 정복말씀들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지겹고 별로 어렵지 않은 그저 주일예배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의 말씀이었구나 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을 때 어려서부터 들던 나의 상식수준에 있던 그 말씀이 아닌 다시 새롭게 나에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이자 감동이었다. 말씀에서 무언가 얻는다는 것 말씀을 통해 새롭게 도전 받고 말씀을 더 알아야겠다고 느끼는 것 참으로 오랜만에 잊혀졌던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그런 저녁 경건회였다. 또 기도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속한 곳을 내가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나를 더욱 기도하게 하였다.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현실을 몰랐다면, 교회에 대한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나는 내가 속한 교회를 두고 애용하고 왜 내가 아파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조별모임도 이번 수련회에 있어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다. 경건회와, PBS, 선택강의들을 듣고 조별모임을 하게 되면 나는 놓쳤던 부분들 또 나와 다른 생각들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조원들과 나누며 깨닫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개인성경 공부인PBS는 말씀 해석이 부족한 나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시간이었다. 다른 운동원들과 PBS내용을 발표하고 나누면서 개인적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이번 학기부터 섬기게 되는

알들을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더욱 기억에 남는 수련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도전이되어 삶에서 붙잡고 나가는 말씀을 나에게 주었던 수련회 이번 겨울 대학 생대회는 나에게 있어 그런 수련회이다 돌아보았을 때 주시는 은혜가 진하게 묻어나오고 이번 수련회에서 얻은 말씀으로 중고생 대회를 섬기며 아이들에게 죽

도록 헌신하라는 말을 해 줄 수 있었으며 다시 내가 눈물로 기도 할 수 있게 해준 수련회이다. 이번 겨울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SFC란 나에게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이제 배운 말씀과 우리의 생활원리 대로 내가 섬길자를 택하고 오직 여호와 한분만을 모실것을!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안유정(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번 2013 제12차 동대구지방SFC 겨울 중교생 수련회는 동일수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큰 웃음을 주시는 김영경 목사님의 여는 예배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시선에 맞게 “우리가 섬길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김명식 목사님과 첫째 날의 저녁 경건회를 가졌다. 다음 날의 첫 조모임은 어색한 기운이 감돌긴 했지만 “미디어에 빼앗긴 하나님의 자리”라는 전체특강의 활동에 참여하며 조 아이들의 활동적인 모습과 타협으로 사이도 가까워지고, 그냥 무심코 살아왔던 우리 삶에 미디어의 비중에 대해 하나님과 연관 지어 또래 친구들끼리 함께 생각해본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점심 후에 이어진 공동체모임은 비록 진행부도 운동원들도 추운 날씨였지만 말씀과 관계되면서도 재미있는 게임을 시간 지나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 어느새 끝이 나서 아쉬웠다. 다음 아침에는 피로가 조금 쌓여오는 듯 했지만 또다시 찾아온 아침 조모임으로 이젠 친해진 조원들과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피로도 어느 정도 잊히는 듯했다. 아침 식사 후 선택식 특강에는 “공부와 비전”, “이성교제와 관계회복” 두 개의 특강이 따로 진행되었다. “공부와 비전”의 특강에서는 공부를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관계하여 비전의 설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

부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공부에 대한 열정을 배워갈 수 있었으며 “이성교제와 관계의 회복”은 이성교 교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들을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평소보다 많은 시간동안 조모임을 했다. 조모임에서 하는 공부는 이제 언니, 오빠가 된 친근한 조장, 조원과 함께 강의식이 아닌 서로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이 좋았다. 아쉬운 조모임 이후로 living library에서는 학년별로 나누어 담당 간사가 될 한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그분의 값진 이야기를 들었다. 자리에 모여 듣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혹은 비슷한 나이 때라는 동질감과 지금 시기에 필요한 이야기가 마음 깊은 울림으로 오는 시간이었다. 셋째 날 마지막 저녁 경건회와 기도회를 통해서 수련회가 끝나고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생각을 다지고 결심하였고, 마지막 날 섭섭한 조모임을 끝내고, 많은 참가자와 많은 장르로 풍성한 찬양페스티벌이 열렸다. 끝으로 닫는 예배는 허태영 간사님께서 이어주셨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신 뜻 깊은 예배였다. 비록 추운 날씨와 불편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새기고 느끼게 한 이번 수련회였다.

# 경안지방 학생신앙운동 겨울 수련회



김진범(안동남문교회)

고민, 의심, 갈등, 자만, 오해... 나의 고삼 수험생활은 이러하였다. 공부하느라 또는 마음이 어려워져서 교회를 못가가는 일도 더러 생기고 기도에도 소홀해지고 성경 읽기도 게을리 했었다. 하나님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내 마음을 두고 지냈었다.

이러한 모습은 수능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순간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안지방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고1때부터 시작된 나의 경안지방SFC, 처음엔 정말 좋기만 했다. 내가 성숙해지는 만큼 점점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우리의 삶에 나가서 은혜의 지속상태도 점점 깊어졌다.

제40차 경안지방 학생신앙운동 겨울 수련회. 좋은 목사님^^ 지방의 중고생운동원들이 저녁 경건회 시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수련회 주제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설교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조별시간에도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께선 하트를 빵빵 날려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목사님과 함께 뛰면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 드렸다.

수련회 기간 중 섬겨주신 많은 준비위원들^^ 부득이하게 원래 장소였던 복된영주수련원의 물탱크가 얼어 수련회가 시작하기 불과 이틀 전에 장소를 안동남문교회로 급하게 변경하게 되었다. 수련회 전에 모여 다시 새로 동선을 짜고 방송, 음향,

모임 장소, 프로그램 등등 모든 것을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련회는 시작되었고 운동원들이 많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 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많은 준비위원 형, 누나들을 보며 내가 지방 서기로 섬기게 된 이 시점에서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올 한해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동원들^^ 몇몇 다른 일정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수련회에 참여해 함께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감사했으며 또 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SFC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역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고 벽차올랐다. 또한 같은 지방 형, 오빠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끝으로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도 참만히 누렸지만 이외의 얻은 것들도 있다. 나의 위치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바뀌는 시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분명 뭔가가 많이 다르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41차 경안지방 수련회까지 내가 맡은 직책을 잘 감당 하면서 중고생 운동원들에게 많은 것은 아니어도 내가 전해 받은 신앙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경안지방 학생신앙 운동원들!! 파이팅!!

# 경북지방sfc 중고생대회를 다녀와서

김강산(명덕교회)

1월6일부터 9일까지 경북 성주 동일수련원에서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택하라'라는 주제로 주강사 박창원 목사님을모시고 3박4일간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번에 고3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고딩 신분(?)으로 수련회를 참가하게 되었다. 가는 동안 내가 중1때 처음 참가한 전국 여름수련회에서 형,누나들이 많이 챙겨준 기억이 나서 이제 내가 중고등부 동생들을 챙겨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나뉘줘야겠다 생각을 하였다. 주일 저녁 바로 경건회를 해서 그런지 모두 피곤한것 같았지만 그래도 들뜬 분위기에서 참사랑이란 주제로 첫경건회를 시작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느낀건 참사랑을 받고 실천해야만하는 나와 우리였지만 내가 관심가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해야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들어 회개를 하였다. 다음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비로소, 하나님을 찾다'라는 주제로 경건회를 하였다. 둘째,셋째 매 아침은 전날 저녁에 받은 말씀을 조원들끼리 서로 나누고 밥절과 강령을 외우고 아침을 먹었다. 오전에는 권율 강도사님의 '신앙과 학업'이란 특강으로 강도사님의 우수한 학업실력배경의 간증과 공부법을 듣고 다음날 오전 특강은 장재철 목사님의 삼위일체론을 듣

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공부가 되었다. 오후엔 윤세진,윤열 브라더스께서 진행하는 선택게임을 하였다. 처음 재미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것으로 끝이 났는데 세상에 많고 많은 유익과 즐거움이 있지만 세상 것 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었다. 중간에 조모임을 하는데 배재준간사님이 예비대 조를 맡아주셔서대학생활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대학생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른 오후 프로그램은 리빙라이브러리 라는 것이었는데 고등부애들이 관심있는 과를 두가지 선택해서 그 과를 다니는 대학생 형, 누나들의 대학생활, 간증, 조언 등 을 듣는 프로그램 이었다.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 왜냐하면 학교선생님,부모님보다 세대차이도 덜나고 말이 통하는 어른(?)을 만나 좀더 명확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살아있는 도서관' 이란 이름에 알맞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고생으로 수련회를 참가했었는데 이제 부총무가되어 앞으로는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과기도로 준비해야겠다.

이번엔 꼭 지켜야지!!



대구경북 SFC 31

## 2013경서지방 수련회 후기

김동성(문량교회)

경서지방 수련회에 대한 나의 첫 기억은 수련회 2주전쯤 대학생대회 포스터를 본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 앞문을 열고 들어와 본당으로 올라가는 길 옆 창문에 보면 쓸쓸하게 포스터 한장이 홀로 붙어 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포스터다. 그럼에도 내 눈길이 포스터를 향했던것은 '너희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설레임과 두려움을 주었다. 그 날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중고등부 수련회 일정이 잡혔다. 그것이 경서지방 수련회였고 보았던 포스터와 동일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수련회라는 말에 설레임과 두려움속에 수련회를 참가 할 수 있었다. 고백하자면 나에게 실로 수련회란 두려움이 설레임을 짓누르는 형태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보았고 성령님의 임하심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것이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변화한다. 즉, 세상적인것들과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것이다. 당시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다른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많이 가까워져있던 나에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것은 세상을 버릴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것의 부재는 하나의 두려움으로 나타

났던것이다.

수련회에서 일정들은 생각만큼 기쁘고 즐겁거나 하지는 않았다. 처음보는 사람들과 조를 짜서 행동하는것이나 2박3일을 뽀뽀한 일정속에서 지내야하는것 등 여러면에서 그랬다. 특히나 한가지 생각나는것은 몇시간을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 설교를 들어야 했던 어려움이다.

경서지방 sfc수련회는 이번이 2번째 참석이지만 2번 참석동안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다. 다른 수련회의 경우 학생들이 지루해 하거나 힘들어 하는것을 고려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짜곤 하는데 SFC는 단순하다. 찬양 말씀 말씀공부다. 특히나 이번 수련회는 찬양시간이 매우 적고 말씀시간과 gbs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겪으면서 그것이 sfc의 강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다. 말씀속에 은혜를 받는다는것은 단순히 내 감정과 분위기 속에서 얻는 가짜은혜들과 다르기 때문일것이다.

주강사님의 말씀은 솔직히 말하자면 지루했다. 내가 원했던 수련회 주제와는 조금 어긋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앉아서 3시간가량을 들어야 하는 약조건이 그렇게 느끼게한 큰 요인중 하나이





“누군가에게는 볼처럼 뜨겁고 누군가에게는 얼음처럼 차가운 수련회지만 누군가 단 한사람이라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경서지방 수련회는 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도 했다. 그렇지만 힘들고 지루하다고 해서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런점에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한번 더 찬양하고 싶다. 지루해도 버티고 듣다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삶이 된다는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 또한 그것을 체험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말씀이 되었고 다시 주님께 돌아 갈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이 되어 속편히 주님께 돌아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특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럴것이다. 나는 2년간 중고등부 회장을 섬겼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충만한 내려놓음을 경험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 아니다. 말그대로 다 내려놓았다. 내가 섬기고 기도해 주어야될 중고등부 친구들 조차 말이다. 그것은 내힘으로 해보겠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실패 때문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나만 열심히하면 중고등부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 될 것이라는 허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교만한 생각속에서 중고등부를 섬겨왔을 뿐이었다.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사람의 힘으로 하다보면 자연스레 지치고 생각

했던 이상과 다른 결과물들을 보며 쓰러지고 낙담하기도 한다. 실패로 모세도 실패했고 나도 실패했다. 하지만 이 둘에는 큰 차이는 차이가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테두리에서 실패했고 나는 사람의 테두리 내에서 실패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 성공했고 나는 넘어졌다. 나는 이 차이점을 이번 수련회에서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도전한다면 그것의 실패조차 성공으로 변화시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것을 말이다.

그 이후 하나님의 강권하신 계획하심이 있었을까? 나는 경서지방에서 부서기를 맡아 일하게 되었다. sfc에 대해 개혁신앙에 대해 무지했던 나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뿐만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까지 잡아주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에 감사를 드릴뿐이다. 누군가에게는 볼처럼 뜨겁고 누군가에게는 얼음처럼 차가운 수련회지만 누군가 단 한사람이라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경서지방 수련회는 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신구위원교체식을 마치다

강여울(등평교회)



작년 한 해를 함께 사역하고 이제 다른 섬김을 위해 떠나는 운동원과 이번 한 해도 대구지방 65개의 교회를 위해, 이 교회들 간의 연합을 꿈꾸며 달려갈 이들, 혹은 작년의 나 처럼 지방위원으로 섬기는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롭기도 하고 한편으론 뭐든 잘 해내겠다는 각오로 패기 넘치는 이들이 오순도순 함께 모여 작년에 했던 사역들, 여태껏 해오는 사역들, 31대가 앞으로 새롭게 펼칠 사역들을 나누었다. 몇 년을 지방위원으로 섬기며 이제는 졸업을 앞둔 선배들을 보며 나도 이 선배들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의 1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지방위원으로 섬긴 작년을 되돌아보았다.

2012년의 대구지방 30대 회계. 시도 때도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기복 심한 신앙과 날이 갈수록 지쳐서 게으름도 많이 피웠고 나보다 더 이 자리에 알맞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나 내 욕심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세우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자리라도 지키자는 생각으로 보냈던 나의 2012년이, 졸업을 앞둔 선배들에게는 얼마나 귀했을까. 함께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될 신위원들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지, 작년에 나는 선배들 일할 때 꼼꼼히 안내우고 도대체 뭘했지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지방사역을 함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지방의 65개 교회를 품고, 함께 할 위원들을 품고, 우리 삶에서의 복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졸업을 하더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지방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동역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선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했다.

올 해부터는 작년과는 살짝 다르게 교회연합에 주력하여 사역하게 된다. 자신의 교회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구지방에 세우신 각 교회들을 돌아보고 서로의 연합과 sfc와의 소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운동해 나갈 대구지방 31대들이 되기를, 31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간사 카페 \_ 재신임훈련후기



## 인도네시아에서 생긴 일

김현정간사

재신임 훈련으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12명의 동기간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해 지금은 8명이 재신임을 결정하고,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입간사 훈련을 다녀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재신임 훈련에 함께 오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은 허니문으로 유명한 발리였습니다. 명성답게 갖 결혼한 커플들과 관광객으로 모시기 위한 택시기사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9년 동안 사역하신 김재룡 선교사님입니다. 밝은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근래에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셨다며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김재룡 선교사님과 함께 발리에서 짧은 하룻밤을 묵고, 말랑이라는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말랑 지역에 머물며 이 곳에 있는 살렘 신학교, 와길 기독교 학교, 교회(엘레오스, 베테스다, 벨엘) 등을 방문하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정통 이슬람 국가이기에 기독교에 대한 편박이 많으나, 약 600여종의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는 나라로 선교가 꼭 필요한 나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지 사역자와 현지 교회를 세워 자력으로 복음화 되는 것이 선교의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신학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참 귀해보였습니다. 이 분들의 땀과 수고의 결실로 많은 사역자들이 양성되고, 기독교 교육의 혜택을 받는 어린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니 기뻐했습니다. 이를 보며 저 또한 개혁신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역자로 부름 받은 자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부디 인도네시아 땅과 한국 땅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사역지 방문 외에도 인도네시아 문화를 탐방하기 위한 일정도 가졌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브로모 화산과 거대한 폭포의 경관은 절경이었고, 원숭이들의 습격으로 헤프닝이 잦은 원숭이 사원(울루마뚜)은 흥미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준 열대 과일들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맛있었습니다.

실외 일정을 제외하고 숙소에 머물 동안에는 틈틈이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가지 주제로 발제와 논찬, 토론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턱을 보낸 시점에서 가지는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질적인 모색을 해보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했습니다.

대구경북 SFC 35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재신임 해외 훈련은 험과 회복을 누리고, 도전과 용기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팀 동안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고, 재신임 훈련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동역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간사 카페 \_ 재신임훈련후기

## 오직 주의 은혜로

오주원간사

바쁜 일상을 떠나서...

1월 30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재신임 간사훈련을 떠났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시작한 간사 사역을 정리하고 평가하여 다음 사역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12월부터 시작된 지역 대학생 수련회를 시작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인 29일까지 쉬지 않고 사역이 계속 있어서 결국 훈련에 대한 기대나 설렘이 아닌 지친 몸을 이끄고 정신없이 쫓기듯 훈련을 떠났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5천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이며, 국토도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호주까지 거리와 같은 정도로 광대한 나라인데 전





체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희가 방문하였던 말랑이라는 도시도 마을마다 수시로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슬람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김재룡 선교사님에게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를 듣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지 교회와 말랑 신학교,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는 최근까지도 이슬람 세력에 테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있는 교회의 방문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 풍요 속의 빈곤...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 9일 중 7일을 말랑이라는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이라 사회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해서 숙소나 식당을 제외하고는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기초로 한 생활 패턴으로 갖추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한국에서와는 많이 다른 생활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그곳에서는 할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이 불편하고 어색하였으나 오히려 할 수 없음이 저에게 삶에서 꼭 해야 할 것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에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써 꼭 해야 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채워야 은혜를 채우지 못함으로 더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나눔과 섬, 그리고 재충전

재신임 훈련은 이국 땅에서의 생활이 주는 피곤함은 있었으나 정신없이 달려왔던 저에게 지난 3년 사역을 돌아보며 육체적인 쉽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를 찾게 되었으며, 동기들과의 사역 나눔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위로와 힘이 났습니다. 간사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피상적인 생각으로 변하고 있었던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셨고, 그 역사가 저를 통하여 나타나길 기도하며 훈련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다시 와 주세요!” 허태영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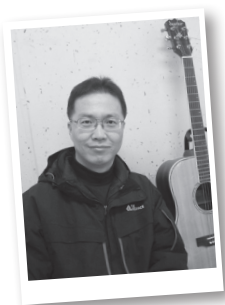


일본 쓰나미 이주민 정착촌(이와키 지역)에 사역하는 일본인 목사님의 요청이다. 7년 만에 'SFC 일본 비전 트립' 인솔을 다시 맡았다. 정착촌의 분위기는 예전의 일본과 좀 다른 모습이었다. 정착촌 봉사자들의 가장 큰 일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밤새 안녕하십니까?'를 확인하는 일이다. 쓰나미 직후 복구에 집중했고, 현재 고착된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는지 생각나게 하는 상황이다.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로움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는 영혼들도 많다. 일본을 위한 기도와 함께, 영적 쓰나미 지역인 한국의 캠퍼스의 3월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해 경북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보건대를 묶은 대구북부권역에서 백종익 간사와 함께 사역하게 되었다. 우리 집이 센터의 역할을 많이 감당할 것 같다. 경동지역에서 사역했던 시절이 생각한다. 모든 사역을 간사와 운동원들이 함께 했던 시절, 많은 운동원들이 우리 집을 찾았고 늘 몸이 아프고 많이 피곤했던 기억, 그러나 매순간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다시 와 주세요!”라고 외치는 또 다른 영혼들을 기억하며 달려가려 한다. 의도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교제의 순서를 생각하며 사역을 시작하려 한다. 동역자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지속하며 이 길을 가려 한다. “다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3월의 캠퍼스를 열어 가려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젊은이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동정을 넘어 믿음으로 이은아 간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설 연휴에 고향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고향에 잠시 다녀왔는데 다녀온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동역자 여러분이 여러모로 저와 이 SFC 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 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보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최근 새벽 기도회 때 본문인데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마냥 마음 아파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울러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온 사건은 적어도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경산에서 4년을 살다가 다시금 대구 시택으로 이사해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부재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 복층으로 사는 것이 예전과 다른 삶입니다. 교회와 가까워지니 훨씬 더 좋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시 우리를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우리를 근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기에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살다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연연해 할 수 없습니다. 방학동안 세 아이들과 오랜만에 함께 중일 있는 기회였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간사님들의 배려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로 최근 체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몇 주째 계속 회복이 되지 않네요. 육신의 연약함을 실감합니다. 올해부터는 수성대(구 산업정보대)와 지역 SFC 지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SFC 운동원들과 이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 간사로서 가졌던 첫 마음으로 배재준 간사

SFC간사로 사역을 시작한지?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차에 이르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니다. 저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엄청난 일도 겪었고,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상처 아닌 상처처럼, 남아 있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SFC 간사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고자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정을 사랑하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대로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사역자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캠퍼스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캠퍼스 사역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희망이지만, 그것은 그저 희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캠퍼스와의 괴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워주신 SFC 간사로서 가졌던 첫 마음을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SFC를 섬겨가려고 합니다. 대구·경북지역SFC가 올 해 들어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변화에 선한 영향을 주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 새로운 시작 황성하 간사

정도 들고 아쉬움도 남는 안동대 사역을 마무리 하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다 같은 사역이고, 모두가 우리 운동원인데 안동에서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안동의 사역이 조금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4년의 안동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마음이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열매들을 남기셔서 이 사역을 통해 자라나는 운동원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안동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운동원들이 스스로 이 사역의 그림을 그려가보고자 힘 쓰고 있습니다. 대구와 거리 상 떨어져 있지만 안동 땅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양권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마치 저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마음에 새깁니다. 철부지처럼 시작했던 처음 마음을 간직한 채, 하지만 더 이상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는 사역하지 않도록 했던 실수는 다시 하지 않고, SFC 사역의 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양권은 대구대, 대가대, 경일대 3학원이 모두 자립해서 사역을 잘 펼쳐 왔습니다. 학원의 리더들이 많이 졸업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가야 하는 이 때에 학원의 운동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간사들과 운동원들이 함께 귀한 사역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SFC 39



## New start! 김주희 간사



사랑하는 동역자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봄을 기다리게 되는 시점입니다. 늘 은혜 속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 저는 올해로 사역 세 팀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물질과 기도로 동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사역적으로 변화가 많은 한해입니다. 캠퍼스 사역지는 경산 권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권율 간사님과 함께 영남대, 한의대, 미래대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님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사역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부터 영남대 SFC 자매들과 함께 학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대 정문 근처에 보급자리를 마련했는데, “함께 살기”를 통해 더 깊이 소통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은혜 속에 잘 세워가

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교제하며 운동하게 되는 한의대, 미래대 운동원들과도 주안에서 깊은 나눔과 소통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사역은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옮겨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해본 적이 없어 처음 가보는 길에 긴장도 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역 7년째이지만, 다시 ‘새로운 시작’의 지점에서 있습니다. 성령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신 소명을 따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에서 함께 동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 3월 사역 소식 백종역 간사

누구에게라도 저는 SFC를 통해서 성장했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간사로서의 삶을 고민하며 떠나는 1년동안,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정어린 마음으로 또 한해동안 사역하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여기시는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매년 줄을이어 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역현장을 보여 주면 필리핀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도 우리도 죄로 죽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비해서 단지 좀 더 불편한 삶일 뿐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1년동안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SFC’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명확히 해야만 할 문제입니다. 개혁교회와 SFC, 개혁신앙, SFC강령에 헌신으로 열매맺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교민들 사이에서의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는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2년단위로 교인 80%가량이 바뀌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한인교회들 중에는 ‘초교과교회’가 많습니다. 참위로가 없는 성도들에게 참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SFC가 개혁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과 힘을 모아야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으로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관계들부터 사역까지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이기에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사역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뜨거움을 일으킨 개혁신앙과 SFC강령이 온전히 성취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근데 왜 감동이 없죠?” 권율 간사



“이 이상 잘 부를 수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왜 감동이 없죠? 애초에 음악을 잘 부르기 위해 시작한 분 같다.” 이 말은 ‘K팝 스타’의 심사위원 중 박진영 씨가 한 출연자의 노래 실력을 두고 내린 심사평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사 사역의 결과를 향한 운동원들의 메아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부터 운동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역적인 테크닉을 완벽히 갖추어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역에 매진하기보다, 운동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간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작성된 메시지 원고를 운동원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역 현장에서 운동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초에 사역을 잘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한 간사가 되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운동원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섬기는 간사가 되고 싶습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 더불어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함께 서우석 간사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 봅니다. 성령강림 이후 말씀(계시)과 삶(소유)이 하나 된 교회를 기대해 봅니다.(행2) 어린 시절 목청껏 부르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도 같이 뛰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사11) 힘과 돈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는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꿔 봅니다.

교회사역팀으로 한해 교회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북, 경서, 경안, 대구, 동대구 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겨울수련회를 시작으로 지방위원들과 교체하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과 함께 지역교회의 부흥과 하나됨을 꿈꿔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운동원들이 지치지 않고 진호흡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지지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여정 함께 걸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간사 소식

## 인사드립니다. 강수정 간사



안녕하세요 :) 2013년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간사를 시작하게 된 강수정입니다. Reformed Cafe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2012년 졸업을 앞둔 경일대학교 방중모임에서 '3월 달 신입생들이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윤세진간사님의 말을 시작으로 경일대학교에 들어가게 시작했습니다. 운동원시절 약해져가는 SFC를 두고, 교회를 품고 많이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보다 SFC에 대한 마음이 더 커 부름에 '예'라고 대답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경일대학교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하루 들어가던 시간이 4일로 늘어났고 대구가톨릭대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택할까 하늘소망을 품고 살아갈까 고민하던 것에 대한 답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사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2학기에는 간사 인터뷰 준비를 하며 경일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멘토로 섬겼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지역인터뷰를 보고 대구경북지역에 간사로 허입이 되었습니다. 허입과 동시에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함께 시작된 간사의 생활은 수련회와 부족한 부분의 공부들과 만남들로 쉼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 간사님들의 숙제가 시간을 잘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처음 방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황성간사님과 함께 하양권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예비일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이라는 새로움에 적응한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SFC 모임을 통해 운동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주십시오. 또한 기도제목은 저 또한 새로운 운동원들과 함께 소통하는데 문제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사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물질의 동역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부름을 받아 교회를 위해 일하다. 윤세진 간사



2013년에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간사를 시작한지 한해가 지나고, 간사 2년차가 된 윤세진입니다. 한해동안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동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간사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맞이한 겨울 방학은 스펙타클 했습니다. 대학생 대회부터 경안지방 수련회까지 총 6개의 수련회를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디렉터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경북지방 수련회는 저에게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지역의 지방을 돌아보고 살펴야할 때 지역의 교역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다른 지방 수련회를 참석하여서는 얻게 되어 몸은 피곤하였지만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한 것처럼 올해부터 T.K 교회연합사역부에서 서우석 간사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올해 교회 사역부에 전담 간사가 2명 배치되었습니다. 지역SFC에서 교회사역을 위해 간사를 전담 배치한 것은 지역 간사님들의 큰 배려입니다. 교회 사역부에서 사역하게 된 것은 지방SFC를 통해 간사로 지원한 저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주된 사역은 이러합니다. 약하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없어 양육받지 못하는 운동원들을 위해 지방위원들과 사역하게 됩니다. 어릴 적 지방위원 선배들과 고민했던 것을 간사가 되어 지금의 지방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사역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사역뿐만 아니라 지방위원들의 양육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양육의 시간이 확보되어서 매주 화요일 큰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잘 양육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개혁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올해 교회 사역부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교회 사역부의 방향을 잡고 걸어갈 밑거름이 되는 한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시고, 목숨을 다해 사역하겠습니다.



## 설레이는 마음으로 배지현 간사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갑니다. 배간사가 봄을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역자들에게 인사드려요. 다들 설레는 맘 안고 봄을 맞이하시는지요. 저와 함께 설레어 보아요!

배간사는 지난 시간동안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대학생대회와 4개지방 수련회를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합숙까지 있었지요. 연말이 있는 수련회로 인해 정신없이, 섬겼습니다. 거기에 교회 수련회와 신입간사모임과 PSP 훈련 등 각종모임이 많았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찬양인도로 섬기게 되어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그만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묵상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컸습니다. 힘들지만 기쁨이 될 것이란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섬김이, 섬김이 아닌 내가 배우고, 내가 채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죠?^^ 신입간사 모임에서는 함께 하게 될 동기들을 통해 위로와 각오를 다지고, 선교훈련을 통해서는 부르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나아가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빠듯한 사역으로 인해 힘들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로 인해 혼란과 긴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역에 많은 변화가 있고, 신입간사 훈련준비 속에서 겪는 생활의 변화도 있지요. 그래서 인지 봄을 맞이하는 제 마음에 설렘이 가득 합니다^^ 이 행복함 설렘 후원자들에게서 함께 안고 가주세요. 그리고 신입간사 훈련준비(재정과 기도로 후원해주세요)에 함께 해 주셔서 함께 따뜻한 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서성욱 간사

새해를 맞이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께서는 평안하십니까. 기대에 부응하고 계획에 신실한 나날들 보내고 계십니까? 연초, 연말에 사역의 분주함으로 동역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죄송함이 큼니다. 그 마음 안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신입간사 훈련을 앞두고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한국에서 주관하는 P.S.P훈련과 학복협 수련회를 가지며, 간사사역의 귀함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간사사역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훈련에 대한 각오도 남다릅니다. 지난 6개월의 사역은, 새로운 사역에 대한 재미가 있었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절실히 보기도 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실해야만 하겠습니까. 새하기를 맞이하고,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기대를 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 가운데 성욱간사에 대한 기대도 함께 가져주세요. 사역의 가장 큰 위로는 기도로 도와주시는 동역자들입니다. 훈련이 코앞인데 훈련비 모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련받으며 다른 사역들에 대해 소홀해 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기도부탁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에 사로잡히는 성욱간사 되겠습니다. 살롬^^



대구경북 SFC 43

### 후원 및 문의

배지현 ▼

1376-02-018958 농협

068-13-162045 대구은행

연락처: 010 2049 7867

서성욱 ▼

352-0480-5597-33 농협

567602-01-206805 국민은행

연락처: 010 7759 7957



## 알돌수련회를 준비하며

지난 1월, 지방SFC수련회 저녁경건회 시간에 중고생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를 두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때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한 고등학생 아이가 기도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글을 있는 지금도 그 아이의 기도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수한 마음과 진솔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던 중고생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알돌수련회로 모여 함께 배우고 교제하며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니 제 가슴이 설레고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알돌수련회를 함께 준비하는 지방SFC 위원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첫 알돌수련회(?)라 실제 준비하는데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지만 이 정도의 뼈격거림은 준비위원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입니다.

4개 노회에 속한 교회의 중고등부위원들이 1박 2일 동안 여러 강의를 듣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한 위원이 무엇이며 그 섬김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실제 한 해 중고등부 1년의 사역을 계획, 실천, 평가를 해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강의와 실습의 시간을 통해 이제 알짜배기 알돌로서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길 기대합니다.

참석하는 교회에 중고등부 위원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어렵직작으로 헤아려 봅니다. 아니, 그 전에 교회 내 실제 중고등부 위원으로 세워져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중고등부가 작게는 두 세 명이 모여 있는 교회 내에서 그들이 실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는 위축되고 한편으로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그 아이들을 돕고 함께 세워가는 수련회가 되고자 합니다. 교회의 한 몸 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아픈 지체들을 돌보아 주길 원합니다. 수련회 준비위원인 우리가 그들의 친 형과 누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맺은 관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함께 운동하며 연합하길 소망합니다.

짧고도 요란한 소리를 담은 핑파리가 아니라 묵직하면서도 지긋이 긴 소리로 울려 퍼지는 징과 같이, 알돌수련회가 교회를 향한 SFC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담아내는 장이 되길 원합니다.





## [후원보고 및 요청]

### 학원선교헌금

구미남교회2 금오교회2 남산소망2 대구서교회2 대은교회2 대일교회1 대한교회1 동평교회2 명덕교회2 박재인안미경2 블로제인2 사랑이꽃피는교회1 삼덕교회2 서문로교회2 신평교회1 영남교회2 왜관남교회1 윤암교회2 이국회2 이성우2 이영석2 이원욱2 이은성2 임정욱2 정은숙2 죽림교회1 청구교회2 침산동부2

### 허태영 간사

김경미2 김경용1 김광희2 김대영1 김명욱1 김미주2 김미진2 김미화2 김범진2 김석호1 김성진2 김경말2 김정욱2 김정연2 김진혁2 김치동2 김해은2 김혜수2 나채욱성경에2 노경원1 도남회2 도혜진2 목광수2 문효준2 박민지1 박성주권순이1 박성태이경숙1 박성환배주에2 박진규2 박진주2 박진희2 박해정2 배영윤이숙명2 배일숙2 배진호김은경2 백중필2 서경진2 서민성2 서부길김경희2 서울시민2 서은영2 설아름1 성동교회2 손진호2 신경주2 신향숙2 신효희1 안미화1 안찬덕1 양동혁1 열린교회2 예수사랑2 우재영2 유해룡1 윤성민2 윤찬성노영은2 윤혜린2 이강욱2 이경수2 이경희2 이규봉2 이명삼1 이미자2 이성우2 이승환2 이승희2 이정임2 이장필2 이혜진1 임성은김정혜2 장민철2 장숙연2 장승언2 장광익2 진화열1 정문자2 정선희2 정유선2 정해숙2 조상아2 조지은2 차정환2 최미니1 최범식2 최진주1 최인식1 최지선2 하대중2 한승재2 허영주2 허인행2 홍사윤2 홍순관2 황우자2 황선희1 황세영2 황영준2

### 이은아 간사

장기우2 강은철2 김미선2 김상진2 김선아2 김성학2 김순곤2 김윤경2 김은아2 김정임2 김진옥2 김호주2 남경애1 박수미2 박종명2 박진경2 백은영2 서상희1 서은선2 신지현2 삼승교회2 임화연2 영남이공동문1 유동란2 윤종호1 이은경2 이상모2 이영주2 이종숙2 장재철1 전광희2 전주경2 전정현1 최금희2 차정환2 하종환1 한형원2 현주희2 홍미정1 황은향1

### 배재준 간사

강병학2 강선현2 강호원2 구동완박공주2 권혁명2 권 락2 김정원2 김근순2 김기홍황은령2 김영석2 김영진2 김은진1 김일순2 노동완2 도혜진1 만민교회2 박영훈1 박원세1 박은숙2 박진현1 배경숙2 백희권2 서원기2 석정은2 양재호2 오수재2 오진실2 용호중앙교회2 우호영2 윤민욱2 이동진2 이미란2 이상모2 이승희2 이어진2 이윤희2 이자은2 이종구2 이종선2 이지혜2 이지희2 이철민2 이충진2 이현두1 임우영2 전동일2 정미진2 정호영2 지현희2 차정환2 큰빛교회2 하양시민교회2 한윤교회2 허엽2 홍순애2 황광숙2

### 김주희 간사

고인경2 권오창2 김미주2 김성준1 김소연1 김영한2 김정숙2 김효진1 도혜진2 통일교회2 문효준2 산성교회2 서민성2 서진주2 손은하2 신효미1 영대SFC25기2 예수사랑2 윤성민2 이진희1 이강욱2 이병혁1 이승환1 이희진2 정사랑2 정연미1 조혜정1 최용석2 최은철1 최지선2 최지현1 허성현2 허인행2

### 금주혜 간사

경북대sfc 교수회1 경북대sfc2 김연석2 김경우2 김태우1 김태섭2 김한호1 김훈희1 도혜진2 대구은혜와 평강교회1 박재장2 박종명1 산성교회2 손소미1 양기돈1 양호석1 연태승1 여석준1 이순기2 이진석1 이충진1 이효진1 임희성1 서형우1 손수호1 정대성2 정의상1 전재윤1 정선희2 최병욱2

### 황성하 간사

5여전도회2 강규태2 고기원집사1 김성동1 김종훈1 김태우2 김혜수2 김훈희1 박미진2 박종명2 박지혜2 박진주2 백은영1 성일교회2 성일청년회2 서지혜1 손은익2 안동대2 안동대동문2 윤명수2 이은경2 이재욱1 이한나1 이한아2 임가영2 장성훈2 전광희2 전규만2 전주원2 정현호2 정현실2 조은아1 조창호2 조현일1 최영환1 홍순경2 황민아2 황인석2

### 김현정 간사

경북대1 교대SFC1 교대동문2 무명1 박성욱2 성경애(나채욱)2 안찬덕1 양기돈1 양동혁1 여석준2 유승열2 이규봉2 이상한2 조혜정1 잠빛교회2 한형원2 홍유리1

### 오주원 간사

경서지방2 김동환2 김민숙2 김상묵2 김순련2 김여주2 김영희2 김정애2 김태섭2 모동교회 청년회1 문경하2 박경옥2 박동식2 박미영2 박은혜(서울)2 박정연2 박창욱2 백인환2 신춘자2 오관섭2 유지수2 이광영2 이요바2 이지희2 정병하1 주영준2 지현석1 초곡교회2 최일철2

### 서우석 간사

권보라2 김동환(신수영)2 김성만(조영미)2 김연석2 노선자2 대구대06 2 대구대SFC1 도혜진2 맛쟁이행남2 모동교회SFC1 모동교회2 모교모회청년부1 문경하2 박경태2 백인환2 손이랑2 윤동원1 이지희1 이초룡2 전국위원57대2 정미진2 정수일(김남희)2 정우영1 정은숙2 정지선1 정철(유정래)2 조현묵2 전한열2 채정순2 추정호2 최일철2 최지영2 최진영2 탁성진1 하가람2 황광재(한혜진)1 황선일(민정희)1 황인철2

### 권을 간사

구지교회2 김갑순2 김순곤2 김순돌2 김종현2 김진호2 김태섭2 김해곤2 김희락2 박옥희1 박민주2 박용영2 박효진2 방해연2 서은애2 안병태1 윤애지2 이병혁1 이상금2 이상현1 이수재2 이재근2 이하나2 작은목자들교회2 장성훈2 정의상(김지혜)2 정재훈1 허인행2

### 윤세진 간사

권태윤2 김기문2 김기호2 김덕일2 김민희2 김연석2 김용진1 김종진1 남산소망교회2 대가대SFC1 마승연2 문경하2 박보람2 배수근1 서문로교회권사회2 운동원1 이동선2 이충진2 임다희1 임성빈2 전한열1 정수정1 정윤성1 정은수1 조현묵2 최영우1 최진영1 최현림, 이초룡2 최현지1 탁성진1

### 배지현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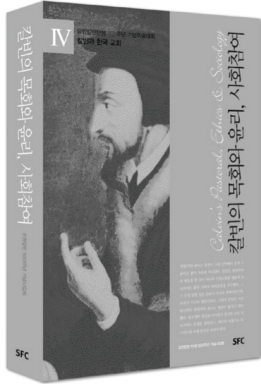
권미경2 권오창2 기도할게1 김강미1 김운진1 김주경1 김훈희1 도혜진2 박주현1 통일교회2 박애진2 배동훈1 배지혜2 백선미2 서민성2 설기훈2 설아름1 설재욱1 윤성민2 이상우1 이재진1 임가영2 임금자2 장미2 전한열1 정사랑2 정은혜2 조혜정2 최현묵2 최범식2 최은철1 탁성진1 한의대SFC1 홍수분2 황민경1 험나라배피치1

### 서성욱 간사(9-10월)

2여전도회1 갈렐리1 권정숙2 김병창1 김용철1 문경하2 문효정1 박은별2 배춘선2 백인환2 삼룡회2 서나리1 서보혜2 서혜진2 약목제일2 이성재2 이진숙1 이혜인2 정금희2 진혜민1 천사성은1 최일철1

- ※ 이번호는 12월 -1월 후원절리입니다.
- ※ 후원자 옆의 숫자는 후원개월 수입니다.

소식지 제작에 도움을 주신 정선희김부선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어에 '동방한의원'검색)



요한칼빈탄생500주년 기념사업회 지음 / 신국판 / 496쪽 / 16,000원

## 『칼빈과 한국교회』 시리즈의 정수이자 마지막 제4권

신학자로서의 칼빈이 아닌  
목회자로서의 칼빈,  
그리고 그가 실천한  
윤리와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다!

### 『칼빈과 한국교회』 시리즈(전4권)

- 제1권 칼빈과 한국교회 / 406쪽 / 14,000원  
: 각 신학적 입장에서 본 칼빈에 대해 다루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칼빈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한다.
- 제2권 칼빈의 성경해석과 신학 / 480쪽 / 16,000원  
: 칼빈의 해석적 방법과 신구약주해들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 펴는 물론 그가 지닌 뛰어난 신학적 관점들에 대해 논한다.
- 제3권 칼빈의 구원론과 교회론 / 540쪽 / 17,000원  
: 구원과 교회에 대해 칼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논한다.
- 제4권 칼빈의 목회와 윤리, 사회참여 / 496쪽 / 16,000원  
: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로서의 칼빈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가 지닌 윤리와 사회에 대한 생각과 다양한 실천들에 대해 논한다.

송영목 교수의 <요한계시록 강해>  
3월 초 출시에정!

SFC출판부  
www.sfcbooks.com

## 칼빈의 목회와 윤리, 사회참여

### 필진소개

정성구, 전호진, 황성철, 정일웅, 이정숙,  
최윤배, 노영상, 지명수, 신원하, 이상원,  
손봉호, 이은선, 이수영, 신국원, 김성봉,  
양창삼, 안인섭, 신현수, 박영호

칼빈탄생5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신학과 사상  
그리고 실천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교과를 넘어  
70여명의 학자들이 뭉치다!





# 기도와 사랑에 감사하며, 2013년도 후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빌4:17)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후원자들 앞에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고,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저희이지만,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기에 현장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SFC 사역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뤄집니다. 간사들의 사례 또한 지역 SFC 사무실에서 함께 모아 본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난달에는 사무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례를 다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연말에 내년 예산을 가정과 교회에서 세우실 때 '내 자녀, 우리 교회 자녀'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며 바르게 교회를 가르치는 SFC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FC 간사들과 운동원들도 재정을 아껴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SFC가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멋진 SFC 운동원을 만들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 목숨을 거는 신실한 성도로 졸업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대구경북 SFC 올림

## 학원 선교 헌금

대구은행 대구경북 504-10-118797-3  
국민은행 대구경북 675001-04-175815  
농협 대구경북 301-0104-7396-11

## 간사 개인 후원

허태영 농협 356-0009-2233-33 / 이은아 대구은행 195-08-016537  
김주희 대구은행 163-13-020940 / 배재준 농협 438-12-168575  
백종억대구은행 086-13-148358 / 금주혜 대구은행 218-13-156004  
황성하 대구은행 064-07-468180-001 / 김현정 대구은행 218-13-242994  
오주원 농협 485-12-132701 / 서우석 농협 743105-56-008608  
권 룰 농협 702076-52-134064 / 윤세진 농협 302-0339-3431-51  
배지현 농협 1376-02-018958 / 서성욱 국민은행 567602-01-206805  
강수정 농협 351-0506-3766-93

- 휴 직 -

박진규 농협 150130-51-077120 / 김은규 대구은행 086-13-073117